

유루와 아라

마모레 강에서 있었던 이야기

에바 루치아 바야리 & 유비티나 갈란



유루와 아라

마모레 강에서 있었던 이야기

에바 루치아 바야리(Eva Lucía Bayarri) 글
유비티나 갈란(Juvitina Galán) 그림
번역 : 김레베카, 김선정

과학 감수

클라우디오 R. M. 바이군(Claudio R.
M. Baigún) 박사,
폴 반 담(Paul Van Damme) 박사

BV
ediciones



자유로이 흐르는 강에게

© 2020 of the text, Eva Lucía Bayarri Clariana
© 2020 of the ilustrations, Juvitina Galán
© 2020 of this edition, Boca Abajo Ediciones

First edition: september 2020

번역 : 김레베카, 김선정

ISBN: 978-84-121976-3-1

BOCA ABAJO EDICIONES, S.L.
46010 Valencia
www.baediciones.com
bocaabajo@baediciones.com

Boca Abajo
ediciones



The total or partial reproduction of any of its contents, even the design of the cover, as well as its storage, transmission or treatment in any electronic, mechanical, chemical, optical device, by recording or photocopying is prohibited without the previous written consent of Boca Abajo Ediciones S.L.

Published by Boca Abajo Ediciones S. L.

이 책은 2020년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2020 World Fish Migration Day)을 맞아 자유로이 흐르는 강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자유로이 흐르는 강들을 위한 대의에 동참하고 우리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그 세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희망하면서 쓰였습니다.

세계 물고기 이동 재단(The World Fish Migration Foundation)은 재단이 하는 일에 대해 열의를 갖고 있는 우리가 인연 맺게 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감의 원천이 되어 주었습니다.



유루는 볼리비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진홍색 금강앵무새
였어요.

아름다운 깃털을 뽐내면서 날아다녔죠.

유루는 마모레 강물 옆의 기나나무 가지 위에 내려앉았어요.

“금강앵무 안녕”

황금메기가 유루에게 말했어요. “ 브라치! 돌아왔구나.”
유루가 대답했어요.

“ 지난 번에는 많이 걱정스러워 보였어. 네가 돌아올
줄은 몰랐네.” 유루가 말을 이었어요.

“ 괜한 걱정이었어. 내가 마데이라 강에서 이칠로강으로
가는 데 아무 방해도 없었거든. 흡혈메기들조차 방해가
안됐다니까.”





“ 난 이칠로강에서 물살이 제일 빠른 구역에 도착했어.
거기는 내 유영 실력으로도 만만친 않지.”

“ 거긴 내 자손들이 하게 될 인생 여행의 첫
출발지로 완벽해. 내 아이들은 볼리비아에 있는 이칠로 강과
마모레 강에서 브라질에 있는 마데이라 강과 아마존 강까지
여행해야 해. 안데스 산맥에서부터 대서양까지 이어지는
여정이지.”

황금메기 브라치가 말했어요.

“ 브라치, 넌 이 강의 주인이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있는거니?”

유루가 물었어요.

“ 난 원래 거기에서 암컷 황금메기 한 마리를 찾아내서 알을
수정시켜야 하거든. 내가 혹시 강이 보낸 신호를 오해했던
걸까?”



“ 무슨 신호?” 유루가 물었어요.

“ 너도 알잖아. 매년 우기가 오면 강은 불어나고 물이 넘치지. 물은 양분과 씨앗들을 강의 *본류 **범람원으로 실어날러주거든. 우린 이런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어. 강의 온도나 강하구의 퇴적물을 통해서 말이야. 우리에게겐 그게 바로 상류로 헤엄쳐가서 알을 낳으라는 신호거든.” 브라치가 대답했어요.

“ 알을 수정시키려고 브라질과 볼리비아를 전부 거쳐 여행한단 말이니? 정말 대단하다!” 유루가 놀라며 말했어요.

“ 강이 시작되는 물살이 빠른 구역까지 이르려면 4000 킬로미터도 넘는 이동이지. 그래도 알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어. 알이 없다는 건 마모레 강 황금메기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브라치가 걱정했어요.

*본류 : 가장 하류에 해당하는 하천

**범람원 : 하천이 홍수상태로 되어 주변에 범람하여 토사를 퇴적함으로써 생긴 평야



" 그런데 그 신호는 너만 알아차린거니? 물고기가 강의 신호를 받았는데 수정을 할 수 없을 때도 있는거야?"

유루가 물었어요.

" 물론이야. 지금 네 말을 듣고 보니 아마존 강과 마모레 강 사이에 무슨 장애물이 생긴 게 분명해."

" 웬지 불길한데. 가만있자. 이럴 때 뭘 해야 할지 틀림없이 말해 줄 이를 내가 알고 있어."

유루는 이야기를 멈추고 훌쩍 날아갔어요. 물론 이유야 브라치를 돕는 것이었죠. 하지만 유루에겐 더 큰 기쁨이 있었어요. 바로 아라에게 말을 걸 핑계가 생긴 것이죠.

아라는 유루처럼 일곱색깔을 가진 금강앵무였어요.
모험심이 많고 용감하죠.
아라는 언젠가 한번 착지를 거칠게 했을 때 자신을 도와준
인간과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덕분에 아라의 한쪽 발에는 발가락이 두 개밖에 없었지만요.
그때 아라를 도와줬던 호세는 이칠로 강의 어부였어요.
그는 마모레 강둑 옆에 살았습니다.
아라와 호세는 늘 가까웠어요.



“ 착지 승인을 요청한다! 오버!”

유루는 아라가 걸터앉아있던 나뭇가지로 날아오면서 소리쳤어요. 아라는 웃으면서 옆으로 옮겨앉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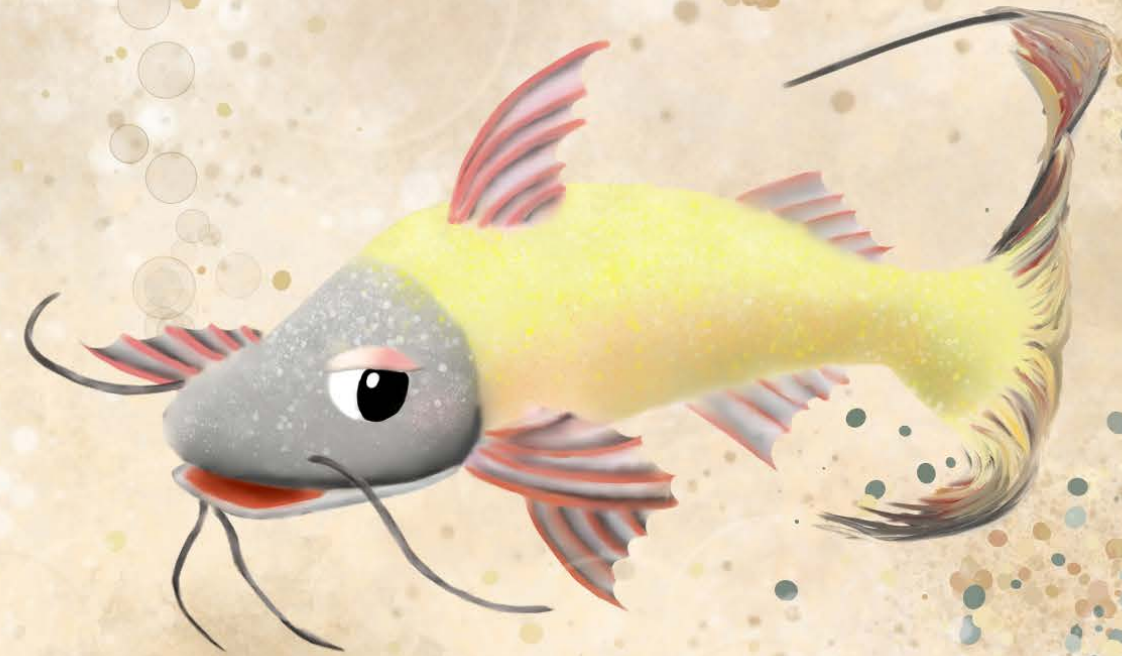
“ 무슨 일로 마모레 강변에 왔어 유루?” 아라가 물었어요.

“ 강의 아름다움.... 그리고 고귀한 임무 때문이지. ” 유루는 아라에게 황금메기 브라치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 호세에게 얘기해줘야만 해. 상류에서 메기를 통 못보겠다고 불평하고 있었거든.” 아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편 상류쪽에는 헤엄쳐 올라가는 3년생 메기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름은 이아라, 강물의 아가씨라는 뜻이죠. 이아라는 목적지가 가까워온다는 걸 느꼈어요. 이아라는 다섯달 가까이 상류로 헤엄쳐왔답니다. 태어나서 갔던 길을 반대로 뒤집어서 이번에는 아마존, 마데이라, 마모레, 이칠로 강을 차례로 거슬러 오고 있었어요. 마데이라 강의 댐들이 다 지어지기 전에 상류로 올라갔으니 이아라는 운이 좋은 편이었죠. 이아라는 이칠로 강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물살이 너무 썰고 그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어려웠어요.





호세는 암컷 황금메기 한 마리를 찾아낸 다음 상류로 가서
브라치를 만나라고 말할 셈이었죠.
그는 그물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이아라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호세를 만났어요.

호세는 늘 그렇듯 자신의 곁을 맴도는
아라와 함께 고기잡이 장소로 갔습니다.
호세는 바늘과 미끼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황금메기를 잡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저 한 마리라도 발견했으면 했죠.



“ 난 아라라고 해.”

호세가 이아라를 그물로 막아서자 금강앵무가 이아라에게 말했습니다.

“ 너를 찾고 있는 이를 알고 있어.

호세와 내가 그를 돕고 있지.”

이아라가 초조하게 말했어요.

이아라는 유루를 위해서라도 꼭 브라치와 아라를 짝지어주고 싶었어요.

유루는 상류에 있는 유일한 수컷 앵무새였으니까요.

“ 왜 나를 찾는 거지? 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으려던 참이었어.”

강물의 아가씨가 물었어요.



“ 그렇다면 넌 브라치를 기다려야 해. 이제 이 강물엔 너와 브라치 둘 뿐이거든.”

아라가 절박하게 말했어요. 아라는 유루에게 알리기 위해 날아갔어요. 유루는 브라치를 금방 찾아낼테니까요.

아라가 떠난 뒤 호세는 이아라에게 좋은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돌아오는 길에는 꼭 둘이 되어서 오라고 했죠.



“ 유루, 일곱색깔을 가진 앵무새. 메기의 친구. 참견하기 좋아하는 새.”

아라는 유루에게 날아가면서 평생 유루와 함께 하기로 결심했어요.

유루는 놀라고,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라가 전해준 강물아가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둘은 브라치를 만나기 위해 함께 날아갔어요.



“넌 믿지 못할거야. 10킬로그램이나 나가는 작은 물고기야.”

유루가 브라치에게 말했어요.

“내가 뭘 믿지 못할 거라는 거니 금강앵무야?”

“넌 다시 이칠로 강으로 올라가야 해.

거기서 누군가가 널 기다리고 있거든.”

유루가 대답했어요.

“메기 말이야! 우리가 이아라라는 금강메기 한 마리를 발견했어. 지금 이칠로 강에서 널 기다리고 있다구.”

아라가 유루의 말을 끝맺었어요.





며칠 뒤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유루와 아라는 물속에 알들이 있는 걸 보았어요.
얼마 후 마모레 강에 작은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았죠.
이칠로 강에서 마지막으로 부화한 새끼 메기들이었습니다.

호세는 강에 메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보고하려고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호세는 자신의 걱정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대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모레 강을 떠난 강의 신호들이 더 이상 강 하구에도 도착하지 않고 있어요.

상류인 마모레 강으로 헤엄쳐 오르려고 하는 물고기들은 마데이라 강에 서 있는 댐들을 발견해요.

댐에 막혀 상류로 가지 못하게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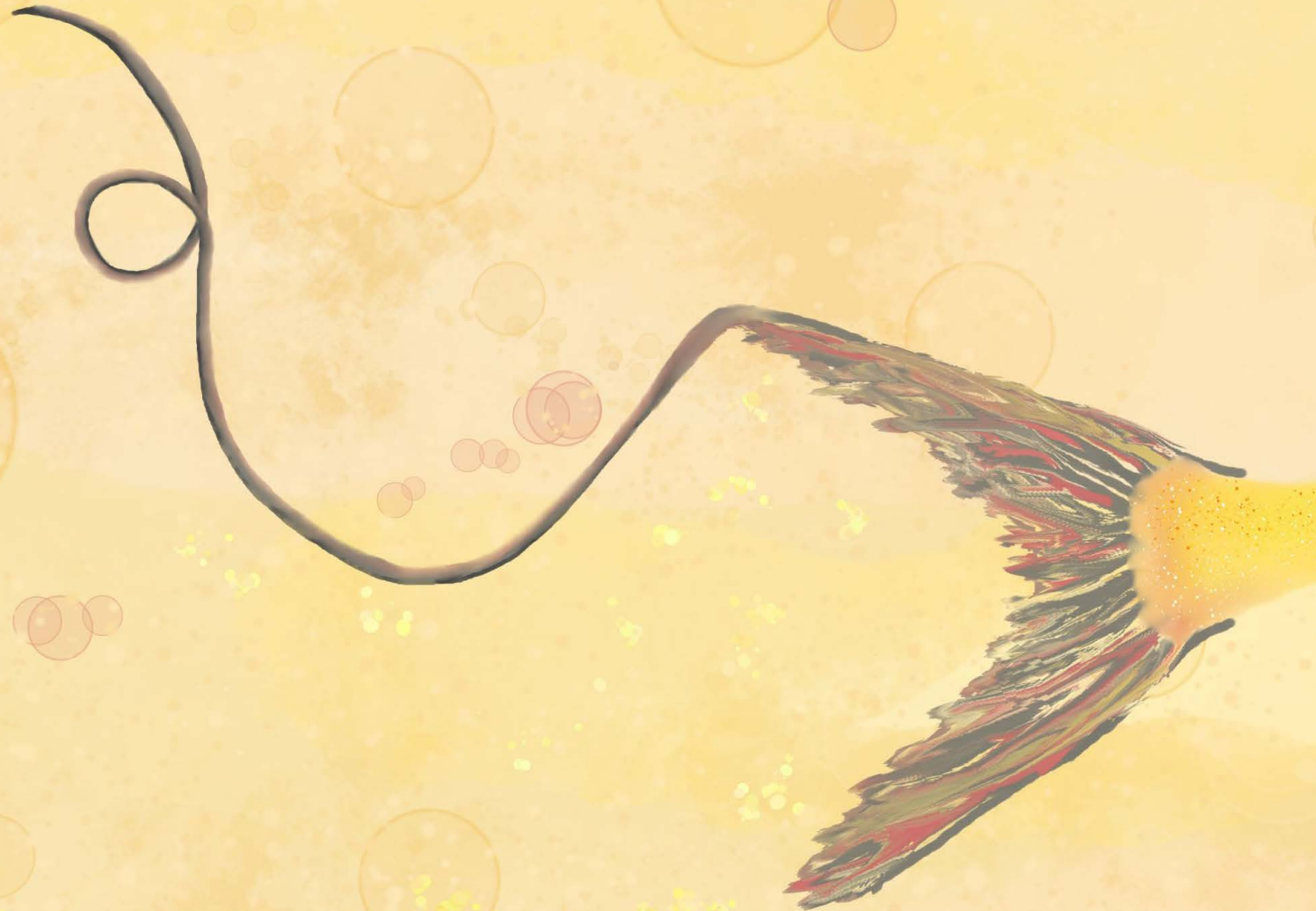
강은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요.

댐은 물고기들의 여행을 막고 있습니다.

댐은 강의 퇴적 물을 가둬버리고 범람원으로 강이 범람하는 것도 막습니다.

이칠로 강에서 메기가 마지막으로 잡힌 것이 2019년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제 문제가 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알고 있었나요...

유라카레 또는 **유루하레**(Yuracarés or **Yurujares**)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볼리비아 내 아마존 지역의 이칠로 강 상류 유역에 살았던 원주민들입니다. **유루**라는 이름은 이 마을에 바치는 이름입니다.

아라 마카오(*Ara macao*)는 볼리비아 산 칠색금강앵무의 학명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의 앵무새에게도 **아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황금메기의 학명은 브라치플라티스토마 루소씨(*Brachyplatystoma rousseauxii*)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의 메기가 **브라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이 흐르는 강

자유로이 흐르는 강이란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연결성을 유지하고 있는 강을 말해요.

상류 - 하류 연결성 : 물, 영양분, 퇴적물은 상류로 흐르고 물고기는 상류로 갑니다.

횡적 연결성 : 강물은 스스로 하도에서 흘러넘쳐 범람원을 적시고 풍요롭게 한 뒤에 다시 하도로 돌아올 때는 작은 황금 메기들이 하류로 여행할 때 필요한 양분을 같이 갖고 돌아옵니다.

종적 연결성 : 강물은 지하수로 스며들어 대수층을 채웁니다. 이것이 물의 주기를 이룹니다.

계절적 연결성 : 강은 홍수 주기를 갖고 있으며 수많은 생물들은 그 주기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용어집

지류: 강 주류로 강물을 실어나르는 이차적인 하천.

흡혈 물고기: 기생 물고기로 학명은 반델리아 시르호사(*Vandellia cirrhosa*)이며 아마존 유역에 산다.

연결성: 연결, 접촉 또는 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하는 능력.

하구: 강이 비워지거나 또는 호수나 바다 같은 또 다른 물로 들어가게 되는 곳.

황금 메기: 학명은 브라치플라티스토마 루소씨(*Brachyplatystoma rousseauxii*)이다. 메기과에 속하고 민물에서 사는 회유성 물고기이다. 이 메기는 먼 거리를 이동한다. 민물 중 가운데서는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는 물고기여서, 페루의 몇몇 지류(페루 동부 우카얄리 주)에서는 거의 12,000킬로미터를 왕복 여행하기도 한다. 브라치와 이아라가 만나는 마데이라 강 유역에서는 그 왕복 여행 길이가 8,000킬로에 달한다.
(역자: 우리말로는 주로 ‘아마존 메기’, ‘두라다 메기’라고 불리지만, 이 ‘두라다’가 영어로는 ‘금박gilded’이라고 번역되는 현실을 감안하고 또 저자와도 충분히 상의한 뒤, 이 책에서는 ‘황금메기’라고 옮기게 되었다.)

수정受精하다: 생명의 창조 또는 그 발전을 용이하게 하다. 수정된 알은 암컷이 낳고 수컷이 씨를 뿌려 수정시킨 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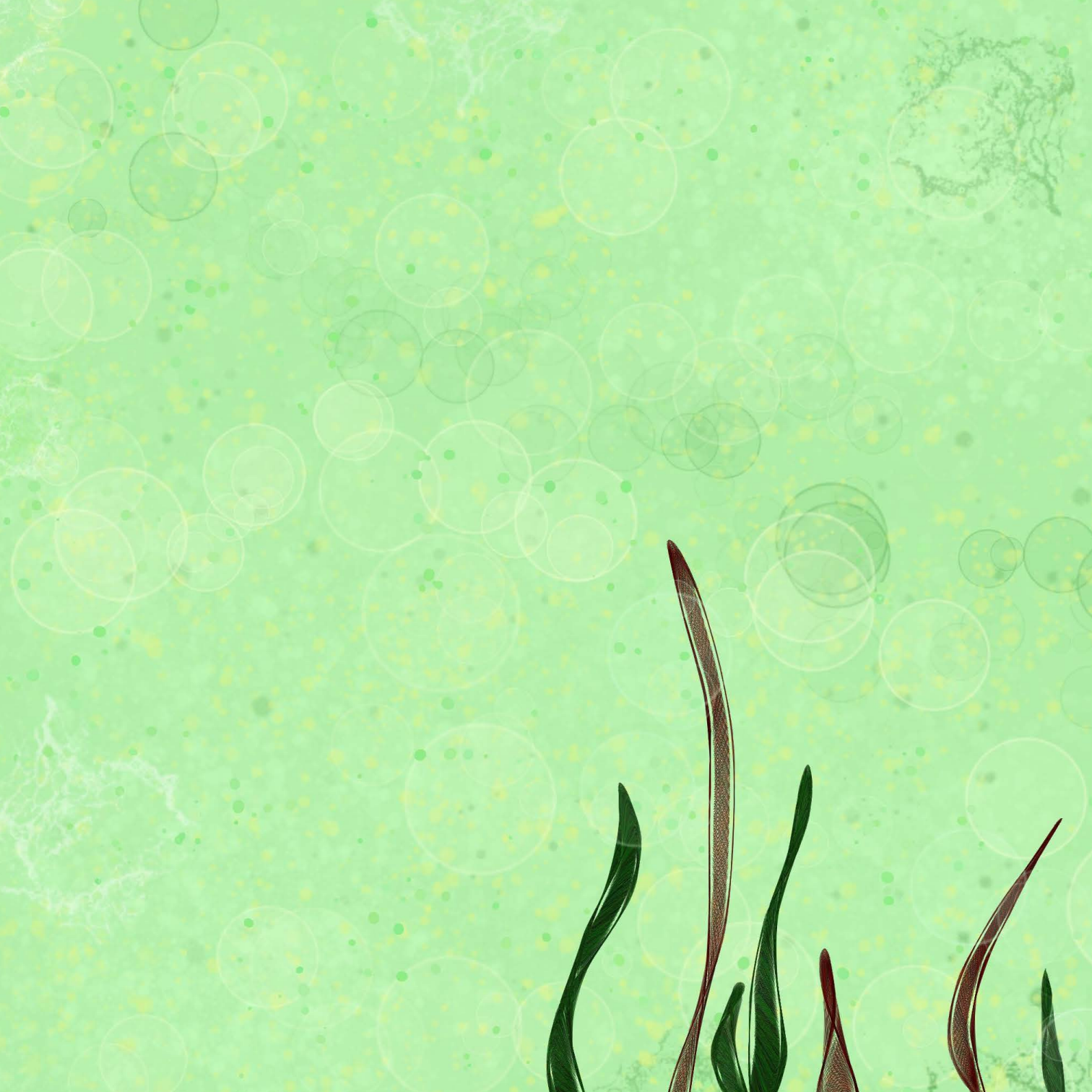
금강앵무: 진홍색 금강앵무, 학명은 아라 마카오(*Ara macaw*). 볼리비아에서는 칠색七色 앵무(paraba)라고 알려져 있다.

한 배의 새끼들: 같이 낳아진 한 배의 새끼 또는 자손.

기나나무: 학명은 싱코나 오피시날리스(*Cinchona officinalis*)이다. 높이가 15미터도 더 넘는 넓은 잎을 가진 안데스 지역의 나무이고, 커피와도 근친성이 있다. 이 나무가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말라리아 치료를 위한 약재로 쓰이는 키니네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껍질 때문이다. 껍질에 함유된 알칼로이드 성분은 이 나무를 유명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불운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 나무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거의 멸종되었다.

댐: 물을 막아 가둬 놓고 그 수위를 높이기 위해 건축된 콘크리트 장벽. 전기를 생산하거나 또는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저수지를 형성하고 있다.

퇴적물(sediment): 녹은 물 또는 빗물이 강류로 흡수시킨 진흙과 기타 고형 입자들.
(역자: 유사流沙라고도 번역된다. 화강암 지대가 많은 우리나라의 유역에서는 모래가 퇴적물의 주요 요소이다.)



마모레 강을 떠난 전언傳言들이 더 이상 아마존 강 하구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 볼리비아 산 진홍 금강앵무새인 유루와 아라는 두 마리의 아마존 황금메기인 브라치와 이아라가 마모레 강 상류에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작정이다.

이 이야기는 자유롭게 흐르는 강들의 중요성과 강의 연결성이라는 신비를 발견하게 된다. 황금메기의 생애 주기와 강의 전언들이 품은 비밀에 대해 배워보시라. 삶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

유튜브에서 우리 책의 원곡들을 찾아보세요:
BocaAbajoEdiciones.

ISBN 978-84-121976-3-1



9 788412 197655

Boca Vbajo 
ediciones

